

■광주 서구 갑

박혜자·송갑석 리턴매치 ... 정용화 시동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59) 의원의 재선에 맞서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낸 송갑석(49) (사)광주학교 교장의 리턴매치가 예상된다.



박혜자 국회의원



송갑석 광주학교교장



정용화 이사장



심판구 시당위원장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 당내 경선이 주목된다. 하지만 잇따르는 신당 창당 선언 등 호남발 정계개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신당 측 후보군의 윤곽은 11월 이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을 앞장 서 '독심'있게 밀어 붙이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초선임에도 당 최고위원과 시당위원장 등의 주요 직책도 맡아 활동했다.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송 교장은 (사)광주학교를 운영하면서 '무등산 역사길'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소외계층 후원 및 지역아동지원센터 등의 시설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역 조직을 탄탄하게 꾸려가면서 내년 선거에서의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패배의 아픔을 맛본 정용화(52) 호남미래연대 이사장도 내년 총선 출마에 시동을 건 상태다.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부위원장 맡아 U대회 성공 개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고려인들기 운동도 활발하게 펼치는 등 바다 민심을 다지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심판구(75) 광주시당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광주 서구 을

무소속 천정배에 보선 후보들 재도전

4·29 재·보궐선거(재보선)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당선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뼈아픈 패배를 안긴 선거구다.

최근 신당 창당 플랜을 밝힌 천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구를 수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욕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또 한번의 '혈전'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지난 재보선에서 천 의원에게 패한 조영택(64) 전 의원과 김하중(56) 전남대 로스쿨 교수, 김정현(55) 중앙당 수석부대변인이 설욕을 준비중이다.

조 전 의원은 재보선에서 패한 뒤 지역을 돌며 '민심 돌려놓기'에 노력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도 지역 내 조직을 다지며 '와신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중앙당의 폭넓은 활동 뿐 아니라 과거 총선·대선·지방선거에서 광주에서 지원활동을 해온 덕에 상당한 지지기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조용진(61) 광산업진흥회 상임부회장



천정배 국회의원



조영택 전 국회의원



김하중 전남대교수



조용진 상임부회장



정승 전 식약처장



강은미 시당위원장

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4·29 재보선에 출마했던 정승(57)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도전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에선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낸 강은미(45) 전 시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남구

장병완에 맞서 전 시장·정치 신인 출사표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63) 의원의 3선 도전에 맞서 김명진(52) 전 박지원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서정성(44) 전 광주시의원, 언론인 출신 정진욱(51)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은태(67) 전 광주시장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내년 총선을 준비중이다. 김명진(52) (사)지역미래연구원 원장으로 '천정배 신당' 쪽으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낸 '예산 전문가'로, 지역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장 의원은 그동안 예산 확보 등의 의정활동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강 전 시장도 일찌감치 남구에 '동지'를 틀고 세 확대에 나서고 있다. 남구에서 재선 의원을 했던 만큼 자신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복당 여부가 주목된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현역인 장 의원을 크게 위협할 정도로 '발로 뛰는 선거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벌써부터 지역 각종 행사 등에 얼굴을 보이며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



장병완 국회의원



강은태 전 광주시장



김명진 전 비서실장



서정성 전 시의원



정진욱 정책위부위원장



김영집 연구원장

다. 의사 출신인 서정성 전 시의원은 현재 진료와 해외의료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의 '복심'으로 알려져 출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광주경제 살리기와 청년인재 육성에 주력해 온 정 부의장은 광주와 남구의 장기발전구상을 그리고 있으며, 광주에서도 희망을 걸 만한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 북구 갑

또 만난 강기정-김경진 ... 선거구 조정에 촉각

북구갑과 을 선거구 가운데 을 지역 인구가 29만4355명으로, 인구상 한선 기준을 초과해 분구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북구 전체 인구가 44만 8779명이어서 경계 조정으로 현재 선거구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선거구 경계 조정이 변수다.

후보마다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구갑 선거구에선 지역구 4선을 노리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51) 의원과 김경진(50) 변호사의 리턴매치에 예상되는 가운데 진선거(51) 전 광주시의원도 최근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광주에서 4선 의원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기정 의원의 4선 성공 여부가 주목되는 선거구다.

탄탄한 지역 조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은 4선 도전을 위해 '표밭 지키기'에 노력중이고, 최근에는 동구와 선거구와 합쳐질 가능성까지 대비해 동구 선거구쪽 인사들도 폭넓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국회의원



김경진 변호사



진선거 전 시의원

김 변호사는 종합편성채널에 얼굴을 알리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의 4선에 대한 거부감 등이 내년 총선에서는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보고 '민심 잡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진 전 시의원도 재선 시의원을 통해 다져온 탄탄한 조직을 통해 내년 총선에 첫 도전할 준비중이다.

예초 강 의원 선거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이젠 강 의원에 '도전장'을 내밀고 '바닥 민심'을 다지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 북구 을

새정치 공천 놓고 계파간 경선 치열 예고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63) 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서 이형석(53)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이남재(48) 전남도 정무특보, 최경환(56)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 등이 거론되면서 치열한 경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간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이형석 전 부시장은 이해찬 전 총리와 막연한 사이로 '친노(친노무원)계', 최경환 공보실장은 '동고동계', 이남재 정무특보는 '순학구 전 대표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안을 놓고 내용이 깊어짐에 따라 일부 후보군들이 탈당과 함께 신당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 의원의 최 실장은 지난 19대 총선 경선에서 한 차례 맞붙은 경험이 있다. 당시 경선에서 최 실장이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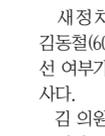
임내현 국회의원



이형석 전 광주부시장



최경환 DJ센터 실장



이남재 도 정무특보

임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내세워 '수성'(守成) 전략에 나서고 있고, 최 실장은 지난 총선 뒤에도 지역에서 공을 들이며 패배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이 전 부시장과 이 특보는 북구를 총선 출마는 처음이다.

하지만, 이 전 부시장은 그동안 다져온 탄탄한 인맥 등을 통해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 전 대표의 '그림자' 역할을 해왔던 이 특보는 그동안 손 전 대표의 호남 조직을 담당해온 만큼 이를 토대로 세를 확장할 계획이다.

윤민호(45) 전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광주 광산구 갑

4선 노리는 김동철에 송병태·장원섭 도전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60) 의원의 4선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김 의원은 이 지역구에서 17대~19대 내리 3선을 했다.

지난 17대 당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

한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정부조직개발특별위원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현재 '현장 속으로, 주민 속으로'라는 취지로 주민과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4선 고지 점령을 위해 활동 영역을 점차 넓혀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당선에 대한 지역민의 거부감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변수다.

이 지역에 도전에 맞설 후보로 송병태(76) 전 광주시정장과 장원섭(49) 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의 출마 여부가 관심사다.

지방공무원공채 1기로 민선 광산구청장을 지낸 송 전 구청장은 광주시 지하철건설본부장, 광주시 내무국장, 행



김동철 국회의원



송병태 전 구청장



김용채 당협위원장



장원섭 전 사무총장

정자치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경륜을 쌓아왔다는 평가다.

장원섭 사무총장은 광주지역 급속노조 부위원장과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 권영길 대통령후보 전략특보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에선 김용채 새누리당 광산갑 당협위원장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 지역구는 도농 복합 선거구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연령대가 높는데, 이 연령대의 유권자를 어떤 식으로 공략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에 따른 다른 예비 후보자들의 참여 여부도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 광산구 을

권은희·이용섭 빅매치... 신당 후보들 변수

지난해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여·41) 의원의 재선 도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에 맞설 후보로 이용섭(64)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송경중(46) 전 광주시의원과 이상갑(48) 변호사, 송환기(63) 새누리 광산을 당협위원장 등도 출마가 예상된다.

권은희 의원은 활발한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벌이면서 재선 도전에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이용섭 전 의원의 사무실을 낸 뒤 활동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재보선에서 많은 새정치 후보가 나왔지만 중앙당의 전격적인 전략공천으로 선거를 포기해야 했던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후보가 나설 가능성이 큰 지역구다.

또한 신당 창당에 따라 일부 후보가 신당 쪽으로 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민형배(54) 광산구청장이 광산을 선거구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선 민형배 구청장이 광산 갑 김동철 의원에 정치적인 빛이 있다는 점에서 광산 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권은희 국회의원



이용섭 전 국회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송경중 전 시의원



이상갑 변호사



송환기 당협위원장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선거구 역시 변수는 있다. 최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이 잇따른 가운데 신당 참여에 관심을 가진 후보군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신당 창당에 따른 야권 성향의 후보 난립 등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목포

박지원 아성 ... 서기호 지역구 출마 관심

새정연 박지원(73) 의원의 지역구인 목포에선 유선호(62) 전 의원, 배종호(54) 전 KBS 뉴욕특파원, 윤소하(53) 정의당 도당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의당 비례대표인 서기호(45) 의원은 보좌진을 지역구에 상주시키는 등 출마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정종득(74) 전 목포시장도 출마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석패한 박지원 의원은 당내 계파 갈등 국면에서 오히려 정치적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3선 의원을 지낸 유선호 전 의원은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 17대~18대 의원으로 활동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을 역임했다.

목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가 당내 경선 파문으로 통합진보당에서 나와 정의당으로 들어갔다.

이 지역구에선 새정연과 신당간 대결이



박지원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유선호 전 의원



정종득 전 목포시장



배종호 전 KBS특파원



윤소하 정의당 도당위원장

흥미로운 대목. 현재 목포는 새정연이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는 가운데 유 전 의원이 '천정배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측이 자웅을 겨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 의원이 천정배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천정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양측간 신당 참여 여부가 최대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여수 갑

김성곤 5선 도전 ... 입지자 대거 출사표

새정연 김성곤(62) 의원의 5선 도전 성공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김 의원은 제15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여수에서 제17·18대·19대까지 4선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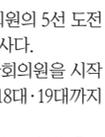
이 지역구는 김 의원의 아성을 후보자들이 어떻게 공략해 가느냐에 따라 선거판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그간 '도(道)의 정치'를 내세우며 여야를 넘나드는 중도적 행보를 보여 왔지만 4선 의원에 걸맞는 정치적 리더십과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여 국회의원에 수차례씩 당선되면서 갖고 닦아놓은 조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남지역에선 최대 다선 의원으로 꼽히는 만큼 중앙당의 공천 여부와 지역민의 지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 의원의 아성에 맞서 대항할 후보자들은 김경호(50) 제주대 교수와 송대수(59)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점유(50) 전 전남도의원, 신정일(51) 예치과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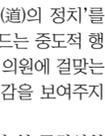
김성곤 국회의원



송대수 전 도의회 부의장



김점유 전 도의원



김경호 제주대 교수



신정일 예치과 원장



김종대 새누리당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김중대(58) 전남도당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해 보인다.

여수의 경우 갑과 을로 나뉜 지역구의 통합여부가 선거에 앞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통합 여부 결정 전까지 선거판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